

자치 브리핑

광주 하계U대회 '준비기획단' 발족

광주시는 15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기획단'을 발족한다.

준비기획단에는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단장, 체육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실무급 인사 80여 명이 참여한다. 준비기획단은 조직위원회 설립과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유니버시아드 영어학교 운영 및 자원봉사자 선발 교육 등 대회 준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올 163만㎡ 분양

전남개발공사는 올해 대불주거단지 등 총 163만㎡ 규모의 도내 사업지구별 택지분양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공급되는 토지는 총 252필지 163만4천700㎡이며 금액으로는 2천395억원 규모다. 사업지구별로는 남악신도시의 경우 의료시설용지 1필지 3만8천㎡, 주상복합용지 3필지 1만6천㎡이며 대불주거단지는 산업용지 6필지 25만6천㎡이다. 또 ▲나주 혁신도시는 골프장용지 1필지 72만1천㎡, 이전기관용지 3필지 13만3천600㎡, 공동주택용지 1필지 6만4천㎡이며 ▲장흥해당산업단지는 산업용지 19필지 35만1천㎡ ▲장성황룡행복마을은 단독주택용지 44필지 2만4천㎡ 등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사업지구별 여건에 맞게 대금수납 기간 연장, 해당 시군과의 공동마케팅 구축 등 특화된 판매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필수기자 bungy@

광주 노인 신종플루 예방 접종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한 노인들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시작한다.

각 병동별로 지정된 날짜에 접종이 가능하며, 각 보건소에서는 상담 콜센터를 통해 접종일정을 안내해 줄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일부터 만 8세 미만 학생 2차 접종에 들어갔으며, 지금까지 광주에서만 모두 29만명이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만성질환자는 안전 접종을 위해 담당주치의와 상담 후 비용을 부담하고 의뢰의료기관에서 접종해야 한다"며 "접종대상에 포함됐어도 최종 접종 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하며, 접종 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노인 일자리 참여 희망자 모집

광주시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노인 일자리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동주민센터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106개 사업체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1년 중 7개월간 주 3회 1일 4시간씩 일한 참가자에게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이 사업에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천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 후 3월부터 업무에 배치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이티 사망자 10만명 넘을 듯… 한국인 모두 무사

교통·통신 두절 등 피해지역 행정능력 마비

병원도 붕괴 의료진·장비 태부족 지원 호소

아이티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지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국경 없는 의사회 등 구호단체들이 긴급 구호작업에 나섰지만, 병원과 의료시설 역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어 구호 작업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아이티 현지에 체류하던 한국인 70여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철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3만~10만 예상=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만명이 넘어서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엔 주재 아이티 총영사 펠릭스 어거스틴은

수도 포르토프랑스에서 "초토화됐다 (flattend)"면서 10만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CNN방송이 13일 보도했다.

르네 프레발 아이티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병원을 역시 큰 피해를 입어 종장비와 함께 의료장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을 호소했다.

국제의료봉사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아이티 현지에서 운영하는 세곳의 병원 중 한 곳도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막스 벨레브리 아이티 총리 역시 사망자가 수십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가 곧 1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정정하는 등 사망자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접자에 따르면 아이티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300만명의 시민이 이번 지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사망자수 전망치가 혼선을 빚는 것은 아이티의 통신,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이 지진으로 크게 파괴되면서 정부의 행정능력이 마비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도 붕괴=병원도 지진으로 무너진데다 의료진과 장비가 부족해 사망자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르네 프레발 아이티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병원을 역시 큰 피해를 입어 종장비와 함께 의료장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을 호소했다.

국제의료봉사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아이티 현지에서 운영하는 세곳의 병원 중 한 곳도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아이티 수도 포르트프랑스 한 광장에 집을 잃은 이재민 수백명이 물려 들어 구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악했다.

이처럼 지진의 파괴력이 커던 이유

에 대해 CNN 등은 지진이 수도 포르트프랑스에서 불과 10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데다, 지진의 깊이가 지표면에서 6.2마일 정도로 매우 얕아 충격이 거의 흡수되지 않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정부, 100만달러+구호대 파견

한적·천주교 서울대교구 등도 긴급구호자금 지원

정부는 14일 아이티 강진사태와 관련, 아이티 정부와 국민들의 피해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호품 제공과 긴급구호대 파견 등 총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이티 정부와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전달하고 아이티가 이번 피해를 조속히 복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구호물자 공급이 긴요한 상황임을 감안, 현지 체류국민들에게 주도미니카 대사관을 통해 긴급생필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적십자사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도 아이티



REUTERS 연합뉴스

에 긴급 구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은 어디에… 아이티 '부글부글'

CNN 인터뷰 후 행방 묘연

아이티에서 200여년만에 최악의 지진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수습 및 구조 활동을 진두지휘해야 할 르네 프레발 아이티 대통령의 행방이 묘연하다.

프레발 대통령은 13일 CNN과 인터뷰를 한 뒤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프레발 대통령은 이 인터뷰를 할 때만 해도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수습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인터뷰 이후 지진 피해 현장은 물론 어디에도 프레발 대통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프레발 대통령과 연락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프레발 대통령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프레발 대통령이 이웃나라 도미니카공화국으로 피신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아이티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신문 '도미니카투데이' 인터넷판은 프레발 대통령이 13일 도미니카공화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직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같은 보도까지 나오자 프레발 대통령의 저신을 비난하는 댓글이 폭주했다. 'generoso'라는 이름의 한 네티즌은 "프레발은 국가 수반으로서 구호활동을 지원하지 않고 왜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느냐"고 반문한 뒤 "가장 부도덕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 "프레발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 때 아이티에 남아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HeartPlus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는 신뢰의 낮나를 고민하는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는 신뢰의 순간

한국 최초의 기술관과 공동연립 '한국'!
한국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신뢰를 제공합니다.
인터넷결제 시스템과 결합하여 신뢰를 제공합니다!

nanoplus
한국인터넷